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깜박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러면 양도세 수익 낸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룩톡(talk talk)' 시리즈 2회차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양도소득세 실수룩톡 제1회차에서도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제2회차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일시적 2주택 및 상속 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각 테마별로 다양한 실수사례를 소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관심이 많지만,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자칫 수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실수룩톡' 국세청 누리집에 국세신고 안내 탭 아래에 항목에 게재돼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세인하 물량 무제한 확대... 체리·키위도 인하"

정부가 관세 인하 대상 과일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면서 전달(2.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근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이지만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해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 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휘발

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바나나·파인에 플 등 24종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을 추가한다.

정부는 식품 가격에 원가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옥수수·대두·설탕 등 주요 식품 원료 관세는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 서비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한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해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2% 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당서 잔술 판다"... 도매업자 무알콜 음료 공급 허용

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매년 200%이상 성장 중인 무알콜 시장에서 2025년에는 2천억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반영해 정부는 '잔술'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잔에 담긴 값싼 술을 찾는 '잔술·혼술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긴셈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판매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